

작품 내용

제 목	요술 뱃돌의 바다와 사라진 소금꽃
내 용	옛이야기 속 욕심 많은 사내는 소금이 나오는 요술 뱃돌을 손에 쥐고 배를 띄웠다. 뱃돌은 멈추라는 주문을 알지 못해 끝없이 소금을 뿜어냈고, 결국 사내와 배를 바닷속 깊이 가라앉혔다. 바다가 지금껏 짠 이유는 그 뱃돌이 바다 밑바닥에서 여전히 돌며 소금을 토해내고 있기 때문이라 전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다. 뱃돌이 만들어낸 소금은 무(無)에서 저절로 솟아난 것이 아니라, 그 뱃돌의 틈새 속으로 흘러들어간 세상 수많은 염부의 땀방울과 누군가의 정갈한 가마솥에서 길어 올린 소금 결정의 형상을 그대로 베껴낸 결과물이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인공지능은 현대판 요술 뱃돌이자 도깨비방망이다. 화면에 몇 자의 문장을 입력하면 순식간에 정교한 화풍의 그림이 나타나고, 음악이 연주되며, 매끄러운 문장이 쏟아져 나온다. "금 나와라, 뚝딱"을 외치던 방망이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의 수고를 덜어주고 창작의 경계를 허무는 경이로운 기술로 칭송받는다.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그려내는 이 거대한 알고리즘 앞에서 찬사를 보내며, 바다를 소금으로 가득 채웠던 사내처럼 감탄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거대한 연산의 바다를 메우고 있는 그 수많은 결과물은 결코 벼락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유려한 붓 터치 이면에는 평생을 화폭 앞에서 고뇌한 화가의 거친 손마디가 있고, 감미로운 선율 뒤에는 피아노 건반 위에서 밤을 지새운 음악가의 고독이 있으며, 논리 정연한 문단 뒤에는 한 줄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 수없이 지우개를 문질렀던 작가의 숨결이 있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십억 편의 글과 그림, 음원을 ‘학습 데이터’라는 건조한 이름으로 삼켜버린 결과다. 전래동화 속 방망이가 허공에서 재물을 빚어낸 것처럼 보였던 것은 우리가 그 이면의 인과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인공지능 역시 수많은 인간 창작자가 축적해 둔 지적 토양을 자양분 삼아 작동한다. 원작자의 이름과 출처는 잘게 쪼개진 행렬과 매개변수의 장막 뒤로 사라지고, 수고의 흔적은 ‘데이터셋’이라는 추상적인 덩어리로 변환된다. 창작자의 허락 없이, 정당한 대가와 존중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무차별적 흡수는 도깨비가 마을 사람들의 공간을 몰래 털어 방망이 속에 집어넣은 뒤 선심 쓰듯 물건을 꺼내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저작권(著作權)이란 단순히 창작물을 독점하고 금전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각을 버려내기 위해 인간이 쏟아부은 시간과 사유, 그리고 인간성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자 예의다. 원작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복제와 학습의 재료로만 소모된다면, 결국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는 인간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밭을 일구는 농부가 사라진 땅에서 아무리 정교한 뱃돌을 돌린다 한들, 언젠가는 갈아 넣을 곡식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는 이치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뱃돌을 깨뜨려 바다 깊이 던져버리는 파괴가 아니라,

맷돌을 올바르게 멈추고 통제할 수 있는 ‘주문’이다. 기술의 발전을 막아 세우자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계 장치가 인간의 지적 자산을 흡수할 때, 원작자의 기여를 투명하게 밝히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윤리적·제도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열을 대체하고 잠식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사유를 확장하고 보조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라는 든든한 주춧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소금을 무한히 뿜어내는 맷돌은 사내의 눈에는 축복이었으나, 멈추는 법과 소금의 근원을 알지 못했던 배는 결국 침몰했다. 기술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맷돌의 화려한 회전 뒤편에 존재하는 수많은 창작자의 땀과 고뇌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 인공지능이라는 요술 방망이가 진정한 문명의 축복으로 남기 위한 열쇠는, 다름 아닌 인간의 창작물에 대한 깊은 존중과 공정한 저작권 질서의 확립에 있다.